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보험업계, 3/4분기 주식 매수 크게 늘려

- 상하이 및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,035개사의 올해 3/4분기 결산보고서에 따르면, 한동안 주춤했던 보험업계의 주식투자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올해 3/4분기 보험회사들의 총 보유주식은 32.63억위안 규모(누계치)로 전분기 대비 55.5% 급증했으며, 9월 말 종가 기준 보유주식의 시가총액도 약 331.1억 위안 규모로 전분기대비 30.0% 증가함.
 - 또한 업계는 76개 주식을 신규편입 한 반면 54개 주식을 제외시켰으며, 151개 상장회사의 10대 대주주 명단에 보험회사 이름이 한 차례 이상 등록된 것으로 밝혀짐.
 -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3/4분기 보험회사 자금의 A주식시장 투자규모가 증가세에 있고, 보유주식에 대한 지분변동이 심해 투자 방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도 이번 보고서로 확인됨.
- 전문가들은 연초 강세를 보이던 중국 주식시장이 최근 주춤한 기미를 보이자 보험회사들이 현재를 저가 매수의 적기로 판단해 공격적으로 주식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 - 보험업계가 2천만주 주 이상 순매수를 한 종목은 지둥쉐이니(冀東水泥), 완커A(万科A), 중궈젠주(中國建築), 메이디덴치(美的電器), 중국생명(中國人壽), 중량둔허(中糧屯河) 등 총 6개로 대부분 대기업 우량회사들임.
 - 상하이종합지수가 3/4분기에만 약 6% 하락한 상황에서 보험회사 편입주식종목을 크게 바꾸는 등 주식투자 비중을 높인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4/4분기 이후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한 보험업계가 공격적인 자금운용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.

(증권일보, 10/29)